

행정학 분야 대학교수의 연구생산성과 그 영향요인: 개인적 특성인가? 환경적 요인인가?*

우 양 호**

고 경 동***

< 목 次 >	
I. 서 론	IV. 분석결과 및 논의
II. 대학교수의 연구생산성과 그 영향요인	V. 결론 및 함의
III. 연구모형 및 설계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행정학 분야에서 대학교수의 연구생산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해외 학계와 국내 이공계에서는 교수들의 연구생산성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온 반면, 행정학 필드에서 아직 교수들의 연구생산성에 대한 개념도입과 이에 관한 검증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학계 발전의 시각에서 교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연구’라고 볼 때,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시론적 의미를 가진 연구는 필요해 보인다. 주요 연구질문과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학 분야 대학교수의 연구생산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연구생산성은 교수가 각종 수고와 노력을 투입하여 결과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다시 학계에 발표, 평가, 수용되는 과정이며, 교수의 사명과 책무 및 제도와 정책 등의 관점에서 연구생산성은 의미가 매우 크다. 둘째, 행정학 분야의 대학교수는 어떤 배경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환경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가? 교수들의 개인적 특성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편이었으나, 상대적인 연구환경은 아직 열악한 편이었다. 셋째, 행정학 분야에서 교수의 연구생산성은 그 양적, 질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연구생산성 수준은 1인당 연간 1.39편으로 낮은 편은 아니었고 시간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긍정적 양상을 보였으나 직급별, 학위별 편차가 있었다. 넷째, 교수의 연구생산성에 대한 각종 영향변수, 즉 향후 연구생산성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수에는 무엇이 있는가? 연구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특성에서 연령과 학위사항이었고, 환경적 요인에서는 연구비지원, 보직 및 봉사부담, 연구년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정부, 대학, 학계의 연구생산성에 대한 주목과 학술정책에 의미 있는 시사점들을 던져 주었다.

【주제어: 연구생산성, 행정학, 교수, 연구결과물, 인적특성, 연구환경】

* 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본문내용의 세심한 지적 및 민감한 쟁점사항을 많이 제안하여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저자들은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제1저자, 한국해양대학교 인문한국(HK) 조교수(woo8425@hanmail.net)

*** 교신저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겸임교수(kdkohl@hanmail.net)

논문접수일(2015.4.23), 수정일(2015.5.28), 게재확정일(2015.6.6)

I. 서론

우리나라 행정학은 194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가 생긴 이래 학문 도입이 반세기를 넘어섰다. 오랜 세월 동안 학문의 변용과 세분화로 인하여 행정학 교수들은 일반행정 외에도 사회복지행정, 경찰행정, 소방행정, 세무행정, 보건행정, 관광행정, 도시행정, 법무행정, 비서행정, 자치행정, 지역개발학과 등에 재직하고 있다. 그간 학자들은 행정학의 태생적 배경, 특성과 정체성, 규범성, 교과목 및 교육, 연구와 취업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논의를 해왔고, 그 개선방안도 다채롭게 제시하였다. 예컨대 행정학의 정체성 확립과 독자적인 발전방향에 있어 미국행정학 중심의 학문적 편향을 벗어나기 위해 한국적 이론과 논리체계를 구축하거나 지식저변 확대 및 적극적 인력양성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학계의 여러 주체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역할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바로 ‘대학’이며, 다시 이곳의 중심에는 ‘현직교수’들이 서 있다.¹⁾

최근 들어 고등교육의 대중화 현상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대학을 연구중심과 교육중심으로 특성화시켜 대학의 책무를 각각 달리하는 시책을 추진하였다.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대학통합, 역할분담과 기능분화 현상은 곧 상대적으로 대학의 고전적 기능인 교육보다는 연구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 즉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는 시점에서 대학에서의 연구활동이 가지는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금은 그간 민감해서 건드리지 못했던 교수의 인사상의 혜택과 불이익도 연구생산성에 따라 점차 그 결정력이 강화되고 있다(조선일보, 2006. 2. 6; 경향신문, 2006. 12. 18; 한국대학신문, 2007. 1. 23; 교수신문, 2014. 11. 30). 따라서 대학에서 연구의 가장 정점에서 있는 교수(faculty)의 연구생산성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들의 연구도량 증진과 학문개척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교수의 연구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근래에 언론보도를 보면 교수집단을 바라보는 그간의 신뢰감과 사회 전반적 인식이 한층 변화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²⁾

1) 이미 권혜수(2009) 등은 행정학의 질적 발전과 재생산 문제에 대해서 기성교수와 학문후속세대 간의 구조적 모순점(특히 교수충원구조)을 성찰적 접근을 통해 다양하게 지적한 바 있다. 이 연구도 행정학계의 이러한 자기 반성적 문제제기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행정학의 정체성(identity) 논쟁과 관련하여 근래에 학술적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행정학 위기의 원인이나 극복의 책임을 곧 행정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 혹은 기성교수들의 몫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논의에는 임의영(1997: 233-251), 정정길 외(2000: 79-100), 윤성식(2000: 243-248), 정승건(2000: 39-59), 조성한(2001: 14-16), 강명구(2001: 91-114), 김석준(2001: 5-23), 김정렬 외(2003: 19-38), 소영진(2003: 5-22) 등이 있다.

2) Arimoto & Ehara(2000: 1-381)는 교수사회의 국제적 사례비교를 통해 교수들의 연구생산성이 높은 국

무릇 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교수들의 본질적 사명을 연구와 학문적 기여로 보고 파악하고 있다. 이에 오래 전부터 연구생산성에 대한 관심이 학문분야별로 생겼고, 현재까지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교수의 책무성이나 규범적 의무, 사명 정도를 이야기하는 수준(이성호, 2002; 주삼환, 2006)에 그치고 있으며, 행정학 필드에서 교수들의 연구생산성에 대한 개념도입과 이에 관한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상의 여러 가지 논점에서 지금 행정학계에 몸담고 있는 교수들의 의무는 규범적으로 분명해진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행정학계와 대학의 모습을 그려내기 위해, 그 핵심적 역할의 주체인 행정학 대학교수의 현주소와 본연의 사명을 학문적으로 논의해보는 것이다. 이에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며 이는 연구의 목적과 다르지 않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학 분야 대학교수의 연구활동에 있어 생산성이나 성과의 개념은 무엇이며, 이를 현실에 도입하여 적용해 볼 수 있는가? 둘째, 행정학 분야의 대학교수는 과연 어떤 배경과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며, 어떠한 환경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가? 셋째, 행정학 분야에서 교수의 연구생산성(faculty research productivity)은 그 양적, 질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넷째, 교수의 연구생산성에 대한 각종 영향변수, 즉 향후 연구생산성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수에는 무엇이 있는가?

II. 대학교수의 연구생산성과 그 영향요인

1. 대학교수와 연구생산성의 의의

서두의 첫 번째 연구질문에 대한 해답은 연구동기와 깊이 연관되며, 학계에 아직 생소한 연구생산성의 개념도입 문제와도 상관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학의 교수(faculty)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강의 및 교수활동(teaching), 연구활동(research), 행정/봉사활동(administration & service)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강의 및 교수활동에는 강의준비와 강의, 성적평가, 수업과 관련된 제반 활동, 논문지도, 기타 학생과의 접촉업무 등이 포함된다. 연구활동에는 개인 및 공동학술연

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외형적 조건을 도출하였다. 즉 상대적으로 젊은 40대 교수, 높은 정규직 교수비율, 연봉, 연구중심대학 비율, 평균 연구시간, 연구비 수혜기회, 국제적 교류기회, 우수한 다수의 대학원 등이 연구생산성을 높인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연구생산성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속하였다.

구와 사고활동, 전문기술 및 지식개발 등이 포함되며, 행정 및 봉사활동에는 교수와 연구를 제외한 각종 사회 및 공공봉사활동, 학회봉사, 학교행정 및 사무, 대외교류활동 등이 포함된다(Arimoto & Ehara, 2000). 이에 교수 한사람의 생산성은 투입과 산출의 측면에서 크게 교수생산성, 연구생산성, 행정 및 봉사생산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교수 본연의 사명과 역할의 측면에서 보면 교수생산성과 연구생산성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연구생산성은 교수 개인뿐만 아니라 대학 및 국가의 경쟁력과 관련하여 최근 관심을 끌고 있다. 따라서 교수의 연구생산성(research productivity)은 교수가 “자신의 유, 무형적 수고와 노력을 투입하여 일정한 연구활동 결과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다시 학계에 발표, 평가, 수용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Legge & Devore, 1987: 148; Perry, et al., 2000: 165). 또한 생산적인 연구자와 교수(productive researcher & faculty)는 “스스로 주도하여 중요한 문제나 현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이 결과물을 적절한 방법으로 알리고, 다양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학계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다(Crosta & Packman, 2005: 56; Roy, Roberts & Stewart, 2006: 894).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근래까지 대학과 교수의 학문적 연구활동에 대해 생산성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거나 거의 사용되지 못하였다. 이는 ‘투입’과 ‘산출’이라는 경제학적 개념이 딱딱하고 계량적이라는 이미지였기도 했지만, 전문적이지 못하거나 무형적인 연구활동에 생산성을 따지는 것이 질적 측면을 도외시할 소지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학과 교수사회에도 패러다임과 환경은 변하고 있다. 즉 국내에서 학술경쟁력과 관련하여 행정학계의 연구생산성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한 몇 가지 증거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규제정책의 측면에서 교육부(현)가 지난 1992년부터 전국대학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는 교수업적평가제도를 들 수 있다(이화국, 1996; 교육부, 2014). 이는 연구논문실적, 강의 및 평가 등이 교수신분에 대한 평가자료로 반영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1996년에 도입된 학술지 평가제도는 현재 한국연구재단(NRF)이 이를 관장하면서 대학연구강화 및 학술활동규제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 교육지원정책의 측면에서 최근의 정부의 학술연구비지원정책이 표방하는 수요와 선택의 원칙이 있다(한국연구재단, 2014). 즉 현직교수는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유명학술지에 현직교수의 논문이 늘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구나 심사과정이 없이 게재가 가능한 논문집보다는 심사가 엄격한 등재(후보) 또는 해외학술지(SCI 또는 SSCI)에 발표가 권장되고 이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보상, 지원하는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강승호, 2000).

셋째, 교수사회의 풍토와 관련하여 선진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발표 또는 소멸(publish or

perish)의 원칙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이성호, 2002). 이는 교수 독자적으로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학계에서 인정하는 전문학술지에 경쟁적 심사과정을 거쳐 발표하지 못하면 자연히 퇴출당한다는 경각심을 부추기고 있으며 냉정한 무형의 원칙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학술활동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학회의 양적 팽창과 분과학문을 막론하고 학술지의 수가 증가한 것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처럼 정부의 학술·교육정책과 경쟁적 연구환경의 변화는 행정학 교수로 하여금 연구활동 지표로서의 연구생산성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 시킴과 더불어 분과학문에서 학회 및 학술지의 위상도 제고된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대학에서 교수와 연구생산성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개인과 대학, 학계 및 국가의 발전 및 경쟁력에 필요조건이다. 따라서 행정학 분야 교수집단의 연구생산성 수준과 그 영향요인을 검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교수 개인의 입장에서는 행정학 분야에서 연구생산성에 대한 기존 관행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토대를 마련한다. 즉 분과교수와 다수 연구자들이 그간 많은 궁금증을 가져왔던 행정학 분야의 적정한 연구활동과 수준을 실증적으로 확인해 봄으로써 자신의 업적수준과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연구의욕과 노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 둘째, 대학 및 정부의 입장에서는 우선 전반적인 대학의 학문적 질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학교와 외부기관에 의해 교수의 고유영역인 연구활동을 평가할 시 방법론이나 모형의 측면에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학 분야 교수와 연구자들에 대한 학술지원이나 활성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셋째, 학계의 입장에서는 행정학 교수들에 대한 연구생산성 개념을 도입, 확산시키고 이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고민, 그리고 생산성 향상방안을 통해 최근 제기된 행정학의 정체성과 위기극복의 한 방안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경로로 삼을 수 있다.

2. 연구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개인적 특성

(1) 연령(age)과 직급(class)

교수집단에서 한 교수의 연령은 곧 임용(재직)기간과 직급을 설명해 주면서 연구생산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Hasselback & Reinstein, 1995: 269-307; Dunder & Lewis, 1998: 607-631; Perry, et. al, 2000: 165-194; Qing & Gill, 2000: 15-26; Sax, et. al, 2002: 423-446). 즉 연구생산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한결 같이 연령이나 직급, 임용기간이 서로 비례하므로 이들 중 한가지 변수만을 상정하였고, 유의미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연구생산성 설명에 가장 많이 이용된 연령을 변수로 상정한다.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연령과 연구생산성의 관계에 대한 가설은 크게 네 가지 유

형이 있다(Yining, Gupta & Hoshower, 2006: 179-189). 그것은 연령이 증가하면 연구생산성이 감소한다는 주장(inverse proportion type), 연령이 증가하면 연구생산성도 증가한다는 주장(direct proportion type), 연령이 증가하면 연구생산성이 일정시점까지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반원형 주장(semicircle type), 연령이 증가하면 연구생산성이 여러 시점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한다는 흡사 낙타의 등과 같은 반원호형 혹은 안장형 주장(saddle type)이다. 이들 가설의 공통점은 생애주기이론(life cycle theory)에서 교수의 생애코스(life course)는 발달 및 퇴보 시기가 교차되는 가운데 연령의 변화에 따라 생산성도 따라 변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러 결과들 중에서도 사회과학에서 연령과 연구생산성의 관계는 반원호형 혹은 안장형의 결과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Bayer & Dutton, 1977: 259-282; Qing & Gill, 2000: 15-26). 학문변동과 진보속도가 빠른 자연과학, 공학에서는 교수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구생산성이 감소하는 반비례형 혹은 반원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반면에 인문사회분야에서는 교수의 연령이 증가해도 상대적으로 이론과 환경변화를 따라가기가 쉬운 점이 연구생산성 곡선을 다르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Dundar & Lewis, 1998: 622; Sax, et. al, 2002: 441). 이상과 같은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1 : 행정학 교수의 연령은 연구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성별(gender)

성별은 교수의 연구생산성을 설명함에 있어 연령과 함께 가장 많이 인용되는 변수이다. 즉 연구생산성에 대한 영향변수로서의 성별의 의미는 동일한 조건에서 남성과 여성교수가 각각 연구생산성의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뜻한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두 가지로 나뉘고 있지만 대체로 성별이 연구생산성에 대해 연령처럼 그리 확실한 영향변수는 아닌 듯 하다. 우선 성별에 따라 연구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Blackburn & Bentley, 1993: 725-746; Streuly & Maranto, 1994: 247-259; Fogarty & Ruhl, 1997: 27-48; Perry, et. al, 2000: 165-194)는 대부분 남성이 여성보다 연구생산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여성교수의 경우 미혼보다 기혼일 경우 연구생산성이 현저하게 낮아지는데 이러한 원인은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가정과 직장에서의 이중역할, 자녀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교수의 연구생산성은 남성과 여성간에 차이가 없다는 주장은 학술연구라는 전문적인 활동에 있어서 대부분의 직업교수 개인의 역량과 자원은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내세운다(Yining, Gupta & Hoshower, 2006: 179-189). 이는 연구생산성이 성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만약 교수 개인의 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연구 외적인 활동(교수, 행정, 봉사 등)인 경우가 많거

나 성별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성별은 연구생산성이나 성과의 영향변수로 분석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옳다고 여겨진다(우양호·홍미영, 2008; 한동성 외, 2008). 따라서 이상의 논쟁과 근거들에 의해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설정될 수 있다.

가설2 : 행정학 교수의 성별은 연구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경력(career)

교수의 경력은 크게 강의경력과 연구경력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연구생산성과 관련해서는 교수와 연구팀이 가지는 경력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Roy, Roberts & Stewart, 2006: 893-905). 일반적으로 과거 연구업적이 뛰어난 연구자가 계속적으로 우수한 업적을 내는 이유는 상호 연계된 강화(reinforcement) 및 축적(accumulative advantage)의 이점과 관련이 있다. 즉 해당분야에서 한번 인정을 받은 학자는 그 인정이 지속, 강화, 재생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비, 시간, 인력, 정보 등의 가용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된다는 것이다(Allison & Stewart, 1974: 596-606; 김태일·남궁근, 2003: 166). 교수의 과거 연구경력의 체계성, 전문성, 분석적 시각은 해당 분야에서 펼칠 미래연구에 대한 동기, 흥미유발, 자신감을 유발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Tien & Blackburn, 1996: 2-22)와 저명한 교수를 많이 확보한 연구팀일수록 논문게재율과 업적이 높다는 결과(Douglas, 1996: 433-440; Crosta & Packman, 2005: 55-65)도 설득력이 있다. 물론 비판적 관점에서 연구와 강의가 분리될 수 없고, 구분의 기준도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강의경력에 대비된 연구경력 기간의 양적인 상대성은 분명 연구자의 성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한동성 외, 2008; 한승환·권기석, 2009). 따라서 교수의 연구생산성은 현재까지의 연구경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3 : 행정학 교수의 경력은 연구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학위사항(academic degree)

교수의 연구역량과 생산성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현실성 있게 다루어져 온 것은 바로 ‘학위사항’이다. 이는 교수의 과거 대학원 수학과 학위취득과정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개인의 지식뿐만 아니라 학문을 접하는 가치관, 연구태도 등이 좌우될 수 있다(Douglas, 1996: 433-440)고 보기 때문이다. 근래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원교육의 부실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외국유학을 선택하는 학생이 상당수이며, 다수는 학위취득 후 국내대학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하고 있다(이성호, 1995; 2002; 주삼환, 2006). 즉 기존교수와 신진교수 상당수는 위

국박사 학위자로 집계되고 있으며(한국연구재단, 2014), 대학의 신규교수 채용에서 국내와 외국박사간의 선호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권해수, 2009). 자국에서의 학위취득보다 유학을 가거나 외국에서의 학위취득은 상대적으로 외국의 언어와 인적교류의 접근성이 용이하며(Arimoto & Ehara, 2000), 실제 미국에서 다른 나라 유학생의 학술지 게재(publications)실적이 높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White, 1986: 228-230), 학위취득의 국가나 유형에 따라 연구생산성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이 설정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실제 미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우리나라 행정학 분야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 개연성을 높여 준다. 이러한 논거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4 : 행정학 교수의 학위사항은 연구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환경적 요인

(1) 소속기관의 특성(type of institution)

소속기관의 특성은 대학이 교수 중심적인가, 연구 중심적인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교수들로 하여금 교수지향적 혹은 연구지향적 행동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변수로 알려져 있다(Blackburn & Bentley, 1993: 727; Perry, et. al, 2000: 170). 즉 연구중심대학은 학부(undergraduate)보다 대학원(graduate course)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 지식의 전달(delivery or Communicate)’보다는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의 창출(create or originate)’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대학을 말한다(Perry, et. al, 2000: 177). 또한 연구중심대학은 장래 연구계로 진출하고자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에 밀반침이 되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대학을 의미하며, 실제 연구교육이 대학원 과정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대학원 중심대학과 혼용해 쓰기도 한다(교육부, 2014).³⁾ 교육중심대학은 교수와 강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강의과목과 기본 시수가 많고 교육업적이 인사에 반영되며 초과강의수당 등의 유인책이 발달된 반면, 연구중심대학은 책임시수와 강의부담이 적고 연구업적이 중요시되며 연구비 수

3) 이에 연구중심대학은 학사교육에 중점을 두는 일반대학(강의중심대학)과는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일반대학의 기본사명은 지식전달보다는 탐구를 통한 학습 기회, 구두 및 필기 발표 기술 학습 기회, 예술, 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을 깊이 있게 배울 기회, 졸업 후 직장인으로 준비를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중심대학은 여기에 추가하여 연구자로부터 전공을 배울 기회, 연구중심대학에 맞는 연구시설, 도서관, 스튜디오, 컴퓨터 시스템 등을 이용할 기회, 타 연구 분야로 옮길 기회, 다양한 문화, 지식, 경험을 가진 연구자와 교류할 기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erry, et. al, 2000). 미국의 경우, 소규모 대학(college)이 종합대학교(university)보다 기술·교수중심적으로 알려져 있고 이에 교수중심학교와 연구중심학교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이성호, 2002). 최근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시책이 활성화됨에 따라 학교별로 과거에는 없었던 교수에 대한 학술연구장려금이나 연구실적 인센티브 제도 등이 신설된 경우가 많다.

혜와 연구기회의 접근성이 쉽다(이성호, 1995; 한승환·권기석, 2009). 업적으로 유명한 교수가 많고 우수학생이 많이 입학하는 학교는 특히 연구부분에서 생산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다(Crosta & Packman, 2005: 63). 따라서 이상의 논거는 연구중심대학에 소속된 교수가 교육중심대학의 교수보다 연구생산성이 더 높을 가능성을 말해주므로 다음의 가설을 만들 수 있다.

가설5 : 행정학 교수가 소속된 대학의 특성은 연구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비 지원(research fund)

기존 연구에서 연구비 지원은 곧 교수의 연구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자 외부요인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나타난다(Blackburn & Bentley, 1993: 725-726; Hasselback & Reinstein, 1995: 270; Forrester, 1996: 537-566; Crosta & Packman, 2005: 55; Yining, Gupta & Hoshower, 2006: 181). 연구비는 연구뿐만 아니라 직업 교수의 전반적인 생산성과 직무만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도 하다(Bieber & Blackburn, 1993: 551-568). 교수에 대한 연구비 지원유형에는 크게 교내연구비와 외부연구비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권경득, 1996; 정운수·권길화, 1999; 주상현, 2002), 경쟁성이나 규모의 측면에서 볼 때 외부연구비가 연구생산성에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조우현, 2006). 특히 인문사회분야보다 자연과학/공학에서 연구비가 갖는 위상은 고가의 연구기자재나 실험장비의 구입과 직결되므로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대학에서의 연구비의 의미는 곧 연구생산성의 원인이자 결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이성호, 2002; 한동성 외, 2008). 따라서 교수에 대한 연구비 지원은 연구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며, 이에 연구비 지원을 하는 국가기관(한국연구재단 등)에서는 역으로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해 수요와 선택 및 집중의 원칙을 근간으로 교수 입장에서 외부연구비신청의 경쟁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근거를 두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6 : 행정학 교수에 대한 연구비 지원은 연구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강의부담(workload of teaching)

현재까지 교수의 연구활동에 있어 강의 및 수업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강의와 연구의 상승효과(the synergistic effect)에 관한 연구는 실험수업과 수리데이터 위주의 일부 자연과학과 회계분야 연구생산성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Hasselback & Reinstein, 1995: 269-307; Bell, Frecka, &

Solomon, 1993: 33-49). 반면, 강의와 연구간의 상충관계(trade-off)는 인문사회분야 전반 혹은 학문분야간 비교연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수에게 학부수업은 양적으로, 대학원 수업은 질적으로 준비와 시간의 부담을 가중시킨다(Tien & Blackburn, 1996: 2-22; Fogarty & Ruhl, 1997: 27-48). 널리 알려진 바처럼, 우리나라 대학교수의 학부와 대학원 강의부담은 일단 양적으로 외국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주삼환, 2006). 교수에게 있어 연구활동과 또 다른 차원인 강의부담은 수업계획준비, 자료구비 및 교재연구, 시험과 과제물, 기타 학생과의 상호작용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강승호, 2000). 따라서 강의부담을 외형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수업시간의 양(수업시수), 학생수 등이며 학생신분, 과목의 난이도나 수준은 질적인 강의부담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교수에게 수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 반드시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수업시간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연구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구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연구들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어 변수로 타당하게 고려되어야 한다(Yining, Gupta & Hoshower, 2006: 181). 따라서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7 : 행정학 교수의 강의부담은 연구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보직 및 봉사부담(workload of administration and service)

처음 임용된 젊은 교수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대학교수에게 있어서 보직은 한번쯤은 반드시 말아야 할 과정이자 책무이다. 보직은 대학교수의 교육, 연구, 봉사책무 중 일종의 노력봉사(go into service)에 해당된다. 이것은 대학 혹은 외부기관이나 단체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특정직위에 임명되어 주로 교수나 연구 이외의 행정적 업무를 수행함을 의미한다(Dundar & Lewis, 1998: 607-631). 이러한 행정적, 사무적 성격의 보직업무는 대학의 기본적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각 대학들은 교수에게 보직임명을 할 경우 그것을 개인적 부담으로 인정하고 강의시간 경감 등 소정의 보상을 하고 있다(이성호, 1995). 예를 들어,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학장이나 대학원장, 처장급은 강의 6시간 정도, 학과장급은 강의 3시간 정도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교수는 현실적으로 자신이 속한 영역의 학회나 학술지와 연관이 있어 무보수 명예직인 학회장이나 실무임원 등에 봉사하는 경우가 많고, 대학 외부의 각종 자문역이나 위원회 등의 봉사도 맡는 경우가 많다(Arimoto & Ehara, 2000). 따라서 교수에게 행정업무와 보직, 그리고 대외적 봉사의 부담은 결과적으로 강의업무 등과 동일한 맥락이자 직업상의 당연직 사무인 것이다(주삼환, 2006; 한승환·권기석, 2009). 문제는 이것이 강의부담과 마찬가지로 시간투여가 필요하고, 연구생산성과는

부정적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일 것이다. 이런 논의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8 : 행정학 교수의 보직·봉사부담은 연구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정년보장(tenure)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교수에게 주어진 신분적 안정성은 곧 업무생산성과 직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신분의 안정감으로 인해 연구생산성이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은 곧 정규직 교수와 비정규직 교수의 연구생산성 차이에서 비롯된다(Zivney & Bertin, 1992: 295-329; Bland, et. al., 2006: 89-123). 그런데 이 부분은 곧 연구자의 경쟁이 학문의 전반적 성과를 높인다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즉 전문적 학술연구를 하는 교수는 심리적 안정감이 없고 경쟁이 심한 상태에서는 연구생산성이 떨어지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업적 신분보장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설명되고 있다(Hasselback & Reinstein, 1995: 269-307). 그리고 한 대학에 정년보장제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소속 교수의 전반적인 직업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결과도 신빙성 높게 나타났다(Schiele, 1991: 132-133). 하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 교수의 정년트랙제도는 오히려 교수로 하여금 현실안주와 생산의욕을 감퇴시켜 연구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이성호, 1995; 조우현, 2006). 이에 최근 많은 대학들이 부교수급 이하의 재계약, 재임용 제도를 고수하거나 비정년 직위로 전환하고 있고, 승진과 재계약의 잣대로 대부분 강의보다 연구실적을 채택하고 있다(한국연구재단, 2014). 따라서 교수의 정년보장 문제는 연구생산성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실적으로 다음의 가설을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

가설9 : 행정학 교수에 대한 정년보장은 연구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연구년(sabbatical year)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구년이나 안식년 제도는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상황이 유사하다. 이 기간은 교수 개인의 역량개발과 연구생산성 향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황응연, 1991; 이화국, 1996). 실제 많은 교수들은 연구년, 안식년을 단순한 재충전 기간으로 쓰지 않는다. 오히려 선진문물과 학문적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외국에 나가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상당수 국내 대학들도 연구년이나 안식년을 제공하고, 사후로 일정부분의 연구성과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연구년 제도는 교수들로 하여금 새로운 학문적 동향을 접하고, 연구에 투자하는 절대시간을 부여하며, 연구의욕을 전반적으로 고취

시켜 연구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만든다(Endres, 2001: 29-38). 그리고 연구년으로 인한 절대 연구시간의 증가는 연구성과와 긍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Yiming, Gupta & Hoshower, 2006: 179-189). 따라서 대학의 연구년 제도의 시행여부와 이에 대한 교수 개인의 이용여부는 연구생산성과 일정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다음의 가설이 설정 가능하다.

가설10 : 행정학 교수에 대한 연구년은 연구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7) 대학원생(assistant)

교수는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간과 공간, 그리고 연구비가 조성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 연구과정에 가장 손쉽게 많이 참여하는 사람이 바로 연구보조인력으로서의 대학원생, 수료 및 연구생 등이다(강승호, 2000; 한국연구재단, 2014). 즉 이들의 실제적 의미는 해당 교수의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의 존재여부, 규모 등으로 교수의 연구생산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존재들이다(Crosta & Packman, 2005: 57). 교수의 연구생산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하부 연구인력, 대학원생의 양과 질, 박사논문지도와 신규 학위자 배출 등이 연구비 지원의 의미만큼, 혹은 그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White, 1986: 227-234; Legge & Devore, 1987: 147-156; Cleary, 1992: 55-61; Douglas, 1996: 433-440). 그리고 교수의 연구생산성은 대학원생에 대한 학문적 지도에 의해 직접적으로 높아지기도 하고(Bland, et. al., 2006: 120), 역량 있고 우수한 대학원생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간접적 효과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Forrester, 1996: 537-566), 대개 학생의 졸업논문을 통한 공동연구의 효과 등에 의해 긍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rosta & Packman, 2005: 우양호 외, 2005; 권혜수, 2009). 따라서 학문적 보조자 혹은 동반자로서의 대학원생, 지도학생들이 교수들의 연구생산성에 대해 환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음의 가설과 같이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4)

가설11 : 행정학 교수의 대학원생(지도학생)은 연구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다수 연구의 실증결과로는 양자가 정(+)의 관계라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교수에게 지도학생이 너무 많으면, 개인시간이 줄어들어 연구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기는 하다(Schiele, 1991: 125-134).

Ⅲ. 연구모형 및 설계

1. 연구모형과 변수

앞선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교수의 연구생산성에 대한 각 변수의 가설과 최소자승법 (OLS: Ordinary Least Squares)을 이용한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먼저 개인적 특성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연구생산성은 높을 것이다. 성별로 보면 대체로 남성교수가 여성교수보다 연구생산성이 높을 것이다. 경력은 연구경력이 강의경력보다 기간이 길수록 연구생산성이 높으며, 학위사항은 국내보다는 외국박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환경적 요인에서 대학의 특성은 연구중심대학이 강의중심대학보다 연구생산성이 높을 것이며, 연구비는 교내보다는 외부연구비 수주가 많을수록 연구생산성이 높을 것이다. 강의부담과 보직 및 봉사부담은 작을수록, 계약신분이 아닌 정년보장신분이, 연구년을 지내지 못한 교수보다는 지낸 교수가, 지도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없거나 적은 교수보다 많은 교수일수록 연구생산성이 높을 것으로 가정했다. 연구모형에서 종속변수인 연구성과물은 각각 가중치를 달리 하여 분석을 하는 동시에 독립변수도 개인모형(Y1), 환경모형(Y2), 통합모형(Y3)으로 다르게 설계하여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1> 연구모형과 변수설명

$$Y_1 = \beta_0 + \beta_1 \text{연령} + \beta_2 \text{성별} + \beta_3 \text{경력} + \beta_4 \text{학위} + \epsilon$$

$$Y_2 = \beta_0 + \beta_6 \text{대학} + \beta_7 \text{연구비} + \beta_8 \text{강의} + \beta_9 \text{보직봉사} + \beta_{10} \text{신분} + \beta_{11} \text{연구년} + \beta_{12} \text{학생} + \epsilon$$

$$Y_3 = \beta_0 + \beta_1 \text{연령} + \beta_2 \text{성별} + \beta_3 \text{경력} + \beta_4 \text{학위} + \beta_5 \text{대학} + \beta_6 \text{연구비} + \beta_7 \text{강의} + \beta_8 \text{보직봉사} + \beta_9 \text{신분} + \beta_{10} \text{연구년} + \beta_{11} \text{학생} + \epsilon$$

- Y 연구생산성 = 국제(SSCI등), 등재지, 등재후보지, 기타(가중치, 자연로그: ln)
- X1 연령 = 만 나이로 30대면 1, 40대면 2, 50대 이상이면 3
- X2 성별 = 남성교수면 1, 여성교수면 0
- X3 경력 = 상대적으로 연구경력이 길면 1, 강의경력이 길면 0
- X4 학위 = 국내박사면 1, 외국박사면 0
- X5 소속대학 = 강의중심대학이면 1, 연구중심대학이면 0
- X6 연구비 = 교내연구비 액수가 많으면 1, 외부연구비 액수가 많으면 0
- X7 강의부담 = 전공담당과 대학원수업이 모두 있으면 1, 하나만 있으면 2, 없으면 3
- X8 보직·봉사 = 교내보직과 학회임원/외부자문직이 모두 있으면 1, 하나만 있으면 2, 없으면 3
- X9 정년보장 = 정년보장이 되었으면 1, 아니면 0
- X10 연구년 = 연구년(안식년)을 지냈으면 1, 아니면 0
- X11 학생 = (대학원생)지도학생이 있으면 1, 아니면 0
- * β_0 = 상수, $\beta_1 \sim \beta_{11}$: 회귀계수, ϵ : 오차

2. 연구대상의 범위

우선 이 연구의 대상인 행정학 분야 교수의 연구생산성 측정에서 행정학 분야 교수에 대한 성격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일부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아니라 행정학 교수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응용학문인 행정학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해야 하는지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분석대상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한다.

첫째, 행정학의 학문적 범위 문제이다. 행정학은 고유영역을 확실히 구축하고 있는 사회과학의 정치학, 경제학과는 달리 응용사회과학이다. 여기서는 행정학의 기본성격이 응용학문이라 할지라도 좁은 의미의 행정의 성격, 분과학문으로서의 기원, 학문의 독자성 판단기준을 중요시한다(이종수·윤영진 외, 2014). 그리고 연구생산성에 관한 행정이론, 방법론, 조직, 인사, 재무, 정책 및 기획, 행정관리, 지방 및 도시 등 행정학의 기본연구영역에 의해 행정학의 범위를 이에 한정하고 특정분야(경찰, 소방, 보건, 교육, 비서, 세무 등)와 연관시킨 분야는 제외한다(권경득, 1996). 따라서 연구실적의 분석대상은 행정학 분야의 국제학술지(SSCI 및 기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 기타학술지(비등재/교내), 학술대회발표논문(프로시딩), 단행본 저서나 역서, 연구보고서 등이다.

둘째, 교수의 범위문제이다. 현실적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교수는 아니다. 퇴직한 명예교수는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현직교수는 현재 크게 전임(정규직: 교수, 부교수, 조교수)과 비전임(비정규직: 계약교수, 외래교수, 초빙교수, 대우교수, 연구교수, 강의교수, 시간강사)으로 구분된다(이성호, 1995; 이화국, 1996; 교육부, 2014). 이 때 연구생산성 원인변수와 관련하여 경력, 학위사항, 보직, 정년, 연구년, 대학원생의 측면에서 볼 때 전임과 비전임 교수를 동일선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시된다. 현실적으로 비전임교수는 상대적으로 경력이 낮고, 박사학위가 없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 보직과 정년, 연구년, 지도학생 등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한국연구재단, 2014). 실제로 비정규 교수에게는 개인적으로 연구생산성 보다는 생계유지를 위한 시간강의나 정규취업의 의미가 더 크며, 일정한 연고나 공간을 가지지 못해 정확한 정보나 실체의 파악이 어렵다. 이에 이 연구는 교수의 범위를 전임교수(full-time professor)만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대학의 범위문제이다. 이는 행정학의 학문범위와도 연관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크게 4년제 대학교(university)와 2년제 대학(college)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가운데 연구생산성에 있어서 4년제와 2년제 대학교수를 단순히 섞어서 동일한 잣대로 분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대학의 존립목표나 속성상 상대적으로 2년제 대학은 교수와 취업, 응용과 실용 위주인 데다가 소속된 교수도 4년제 대학교수에 비해 학술연구시간과 연구환

경전반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한국연구재단, 2014). 그러므로 여기서는 4년제 종합 대학에 소속된 교수만을 연구대상으로 하되, 강의중심대학과 연구중심대학을 구분하였다. 특히 연구중심대학의 기준은 교육부(2014)의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CU사업) 자료를 이용하였다. WCU(World Class University) 사업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대학에 매년 약 1,600억 원씩의 재정이 투입된 교육부의 대표사업이다. 이 연구의 분석기간이 포함된 2008년부터 교육부는 매년 전국 대학들의 학부생 대 대학원생 비율, 대학원생수 대비 석·박사학위 배출 실적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총 5년 간 57개 연구중심대학을 선정한 바 있다.

넷째, 연구생산성과 일부변수의 범위문제이다. 먼저 연구생산성의 기간과 관련하여 연구 목적에 따라 최근 5년(t년: 2009~2013)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전임직 5년 미만의 교수는 최초 전임임용시점부터 2013년까지로 설정하였다. 연구생산성을 집계한 실제 조사시점은 익년도(t+1년)로 계산되었다. 반면에 연구실적물 범위의 경우 어디까지를 출판된 연구실적인가와 실적간의 질적 가중치 문제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었다. 현재까지의 객관화된 준거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이 가장 타당하다. 이에 단순실적물의 자연로그(natural log)와 국제학술지(SSCI 등), 등재(후보)학술지, 기타학술지, 교내논문집의 등급으로 구분한 가중합계를 동시에 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되었다.⁵⁾ 그리고 연구실적물에서 학위논문, 학술행사 발표문, 기타 원고는 제외하였고, 등재지와 등재후보지 선정이전 실적의 소급적용은 하지 않았으며, 중복실적(학술지와 단행본)의 경우는 등급이 더 높은 것만 산정을 하였다. 개인저서나 단행본의 경우 가장 높은 학술지 등급으로 간주하되, 단독저자와 공동저자의 상대적 가중치까지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행정학 학술 및 전공과 관련 없는 기타 출판물도 제외되었다.

마지막으로 국내업적의 경우는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지만, 교수들의 해외논문은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완적 수단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학술지(SSCI)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외국박사학위신고업무 담당자 2인을 통한 전수파악의 방법 및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검색과 더불어 한국연구재단과 업무제휴가 되어 있는 미국의 톰슨 로이

5) 연구성과물 수준을 5등급(5점-1점)으로 산정한 것에 대한 또 다른 근거도 있다(김태일·남궁근, 2003: 173-178). 간접적도인 학술지간 등급차이가 원래는 서열척도인데 이를 등간척도로 측정하면 무작위오차가 발생해도 분석결과의 유의미성이 일부 감소될 뿐 편의(bias)는 가져오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종속변수를 카테고리화한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t)이 방법론상에 있어 더 타당할지라도 계수값의 도출형식과 의미해석에 있어 선형회귀분석이 유리하다. 즉 다항로짓분석은 종속변수인 4개 카테고리의 계수값이 각각 도출되어 영향력의 상대적 비중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 때는 회귀분석결과에 대한 큰 의미 부여가 아닌 대체적인 관계의 경향성만 파악하는데 그쳐야 함을 언급해 주어야 한다.

터(Thomson Reuters: 구 ISI)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중복적으로 체크되었다. 최근 SCI(E), SSCI, A&HCI의 신규등재 및 관리를 국제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톰슨 로이터는 2014년에 한국연구재단의 KCI와 자사의 국제저널DB(JCR) 간의 온라인호환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는 2016년까지 국내학자라 할지라도 국내·외 연구업적을 온라인 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되고 있다(<http://science.thomsonreuters.co.kr>).⁶⁾

3. 연구변수의 측정

교수라는 특정 집단의 연구생산성 측정이란 것은 연구결과물이 갖는 특성 때문에 계량화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연구관심이 활성화된 외국에서는 기성학자의 연구생산성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되고 있다. 하나는 학술지논문과 저서 위주의 연구실적물을 원자료(raw data)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으며(White, 1986; Cleary, 1992; Bieber & Blackburn, 1993; Hasselback & Reinstein, 1995; Douglas, 1996; Dundar & Lewis, 1998), 다른 하나는 설문지를 통해 교수들에 대한 개별조사를 하여 연구실적수준과 기타 요인을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Schiele, 1991; Perry, et. al., 2000; Sax, et. al., 2002; Yining, Gupta & Hoshower, 2006; Roy, Roberts & Stewart, 2006). 즉 기존 연구에서는 연구생산성 자체를 측정하기보다는 연구결과물을 위주로 한 연구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⁷⁾

전자의 경우, 연구생산성 측정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연구논문과 저서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과 분석지표를 이용하여 양적,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데 이 때 결과물에 대한 가중치나 점수를 차별적으로 부여한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시스템 자체가 ‘수준별 계층화(stratification)’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Dundar & Lewis, 1998: 608). 즉 개별 연구실적은 학계의 자율적인 출판체계(journal publication system)에 의해 학술적 지위(intellectual status or leadership)가 차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분과학문의 학자들이 스스로 요구하고 지키고자 하는 수준에 맞는 연구물만을 상호 선택적으로 출판하고 공유하는 학술적 자기통제(self-control)의 원리를 말한다(White, 1986: 227; Hasselback &

6) 참고로 분석대상에서 행정학 교수의 국제학술지(SSCI) 논문은 업적케이스 3,882편에서 104편(2.7%)을 차지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내박사출신 교수의 전체 케이스 1,520편의 19편(1.2%), 외국박사 출신교수의 전체 케이스 2,362편의 85편(3.6%)이었다. 이와 같이 국제학술지(SSCI) 논문의 높은 가중치에 비하여 양적 비중(2.7%)이 미미한 관계로 분석결과의 변이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 국내에서는 연구비 지원과 연구자의 정보비대칭 관계를 분석하거나(정운수·권길화, 1999), 학술연구비 지원정책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연구비지원과 연구결과물 수준이 관계를 논의한 연구(김태일·남궁근, 2003; 우양호·홍미영, 2004) 등이 그것이다.

Reinstein, 1995: 269). 이 방법의 장점이자 약점은 기존의 패널데이터와 연구실적통계자료의 구체성과 신뢰성에 따라 연구결과가 좌우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교수의 연구실적물의 양적, 질적 분석을 통해 연구생산성의 수준을 설명해줄 수 있음을 말해준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교수의 연구생산성을 객관적 연구실적보다는 설문조사(survey)에 의한 주관적 실증으로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 연구실적 통계자료나 패널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고, 일련의 연구실적만으로 파악하기에는 교수집단의 연구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개인적 요인이나 외형적 측면에 치우친 방법론상 한계가 크기 때문이다(Roy, Roberts & Stewart, 2006: 893-894). 게다가 교수 개인에 대한 연구실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내생적 요인까지 파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비교적 근래의 연구생산성 측정 방식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도 교수가 과거 개인연구업적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하며, 응답의 성실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만 한다는 약점이 있다(Sax, et. al., 2002: 433).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생산성 측정에 관한 연구방법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려 노력하였다. 그것은 연구생산성 측정의 전통적 방법인 연구실적통계조사와 설문조사의 결합이라는 ‘복합적 수단’을 사용하여 약점을 상호 보완하는 방식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수집에서 뒤이어 논의한다.

4. 자료수집과정

행정학 교수의 연구생산성 측정을 위해 이 연구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하나는 전통적 방법인 연구실적물의 계량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추가변수와 한계집단(marginal group)에 대한 설문조사 방법이다. 분석자료에서 먼저 전자는 행정학 교수의 패널데이터와 연구실적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이는 교육부 교수연구업적통계, 한국연구재단의 통합연구인력정보, 한국행정학회 및 한국정책학회의 회원명부를 이용하였다. 여기서는 연구생산성 수준(종속변수)과 연령, 성별, 경력, 학위사항, 소속대학, 연구비 수혜 등에 관한 정보(독립변수)를 수집했고, 설문조사를 위한 연락처와 주소 등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얻지 못한 변수에 관한 추가정보 조사는 전국 대학본부 및 학과의 협조를 통해 인적특성, 소속대학의 특성, 교수부담과 강의부담, 연구비 수혜, 정년보장, 연구년, 대학원생 현황을 밝혀내었다.⁸⁾

수집된 자료에서 나타난 전국 국·공립 4년제 대학 행정학과 전임교수의 모집단은 2013년

8) 자료수집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집단(marginal group)은 모집단에서 대체로 연령이 가장 높은 교수(퇴직 임박교수)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연구의 패널데이터자료로 활용되는 한국연구재단의 온라인정보등록에 관심이 없거나, 실제적인 연구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연구재단 온라인연구자정보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경우도 종속변수인 연구생산성 측정에 특히 어려움이 있어 패널데이터와 설문조사 두 가지 방법이 불가능했던 집단은 부득이하게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2월 30일 기준으로 총 926명이었다. 이 중 연구자정보에서 신상데이터를 밝히기를 거부하였거나 입력하지 않은 경우, 전국규모의 학회에 전혀 가입하지 않은 경우, 국내에 부재중인 경우가 총 92명(9.9%)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집단을 제외한 최종표본집단은 834명(90.1%)으로 나타났다.⁹⁾

IV. 분석결과 및 논의

1. 변수들의 기초통계

1) 개인적 특성

서두의 두 번째 연구질문은 행정학 교수는 과연 어떤 배경과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며, 어떠한 환경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교수들의 개인 및 환경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는 <표 2>와 같다.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자료는 최근 교육부(2014)의 <전국대학교원 현황총괄> 자료를 구하여 질적으로 해당 내용을 비교해 보기로 하였다. 우선 개인적 차원에서 행정학 교수의 평균 연령은 49.6세로 연령대별로 보면 50대와 40대가 많고, 30대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적으로 세 가지 가능성을 제공한다. 하나는 행정학 교수들의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학들이 신규교수채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상당수 대학이 신입교수임용 시에 신규학위취득자 보다는 학계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교수로 채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아니라면 최소 40세 전후의 나이가 되어야 행정학 교수직에 진입할 수 있으며, 그것은 곧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연령이 낮지 않음을 암시한다.¹⁰⁾

한편, 최초 전임교수로 임용된 이후 재직기간은 연령과 거의 비례하는 분포를 보였다. 직

9) 2014년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사회과학 분과정원 총계만 산출할 뿐 행정학에 대한 별도의 모집단 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4년제 대학의 본부 및 행정학과/학부에 확인전화조사 등을 통해 수작업(hand-made dataset)으로 산출하였다.

10) 최근 우리나라 대학교수의 박사학위 취득연령은 평균 37.8세로 나타났다. 학문분야별로는 인문학과 사범전공이 38.3세로 가장 늦게 학위를 받았고, 어문학(38.6세), 사회과학(37.2세), 공학(35.6세), 이학(34.8세) 전공의 순으로 나타났다(한국연구재단, 2014). 그리고 1992년 전국 4년제 대학에 소속된 조교수의 평균나이는 약 35.5세였으나, 10년 뒤인 2002년에는 각각 약 40.2세로 집계되었고, 최근인 2012년에는 약 43.3세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학을 포함한 학문전반에서 교수사회로 최초 진입하는 신입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교수들이 강단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교수의 평균 나이도 학문분야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인문학 분야의 경우 45.2세인 반면 사회과학 분야는 42.7세, 의·약학 분야는 38.4세로 가장 낮았다(교육부 대학정책과 내부자료, 2014).

급도 정교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먼저 직급에서 정교수 비율이 거의 과반수라는 사실은 앞으로 학계에서 정년퇴임 등으로 빠져나갈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해당 대학들이 지속적으로 신규교수 임용을 통해 교수부족현상을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동시에, 어느 시점에서 일시적인 교수부족으로 한국 행정학의 진화, 발전에 방해될 줄 가능성도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조교수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대학의 채용 및 평균연령과도 분명 상관이 있다. 예컨대 상당수 대학이 경력직 교수들을 영입하거나, 외부 기관 경력에 따라 초임의 경우도 일정 직급을 부여하는 상황으로 여겨진다. 다른 관점에서 기성교수들의 학교이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¹¹⁾

<표 2> 행정학 교수의 개인적 특성

성 별	남	787명(94.4%)	연령	30대	44명(5.3%)
	여	47명(5.6%)		40대	334명(40.0%)
재직기간	10년 미만	287명(34.4%)		50대	341명(40.9%)
	10년~20년	425명(51.0%)		60대	115명(13.8%)
	20년 이상	122명(14.6%)		경력	연구우위
직급	조교수	234명(28.0%)			강의우위
	부교수	195명(23.4%)	학위	국내박사	322명(38.6%)
	정교수	405명(48.6%)		외국박사	512명(61.4%)

표본의 성별로는 남성교수가 절대다수인데, 이는 교육부(2014) 교원통계 상의 전체 여성 대학 교수비율 보다 낮은 수치이다. 더구나 여성교수의 비율이 외국에 비해 높다고는 할 수 없고, 여성박사학위자의 절대적인 증가와 더불어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여교수채용목표제 실시 등 정책적인 영향이 있었지만 행정학 분야에서는 아직 뚜렷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¹²⁾ 게다가 경력사항에서 행정학 교수로 임용된 사람이 대체로 강의보

11) 현재 우리나라 대학사회는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의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지방대학의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상호통합, 특성화 및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전환, 전문대학원 준비 등의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이에 대학들이 다른 대학의 경력교수들에게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있어 교수들의 이동이 늘고 있다. 이에 신입교수들의 직급과 지역에 국한해서만 보면 이는 더 심해진다(교수신문, 2014. 11. 30). 결국 조교수로 출발해 정년퇴직까지 한 대학에 머무는 전형적인 교수임용시장은 점점 변화 중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2) 교육부(2014)의 설명에 의하면, 여성교수채용할당제에 의해 전국의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전체 교원증가율(4.5%)보다 여성교원의 증가율(9.0%)이 큰 폭으로 향상되고 있다. 근래 전국 4년제 대학의 여성교원 수는 7,714명(2007)→8,460명(2009)→9,224명(2013)으로 변화되었다. 마찬가지로 교수신문(2014)이 신규교수 임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1천135명의 교수가 새로 임용됐

다 연구를 먼저 시작했음을 말해준다. 비슷한 맥락에서 현직교수들의 학위는 외국박사 출신 교수의 비중이 높았고, 국내박사 지역은 수도권 대학이, 외국박사의 국가는 미국이 많다.

2) 환경적 요인

행정학 교수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에서는 <표 3>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소속대학의 특성을 살펴보면, 강의중심대학의 비중이 높았다. 그렇지만 이것을 근거로 대학을 연구중심과 강의중심으로 단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정책이나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고, 실제로 양자의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갖는다는 점도 문제이다. 학문발전을 위한 지식창출이나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면 대학은 일반 연구기관과 다를 바가 없으며, 인력양성 교육에만 치중하면 교육 혹은 강의중심대학과의 구분이 더욱 모호해진다. 우수한 연구에 의한 지식창출은 유능한 고등교육을 위한 필수요건이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유능한 고등인력이 배출되어야만 다시 지속적으로 우수한 연구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 그렇지만 대학이 연구와 강의 중에서 현재 어디에 역점을 두었느냐는 것은 교수의 연구생산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한편, 연구비 지원에서는 교내연구비 유형이 높았는데, 이는 세 가지 측면으로 해석된다. 하나는 수혜의 편의성과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교내연구비는 외부연구비에 비해 아직 수혜자격이나 기준이 엄격하지 않은 탓도 있고 수주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편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외부연구비 수주가 어려운 교수들이 교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곳도 있다. 다른 해석은 외부연구비 수혜의 지역적, 개인적 편중성의 존재이다. 일반적으로 교수의 연령이 높고 지방사립대학일수록 연구비 지원을 외부보다는 학교 내부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 응답을 결정했을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 해석은 학문의 특성상 외부용역의 발주나 연구비규모가 적다는 점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행정학 교수들이 갖는 강의부담은 학부전공담당과 대학원수업이 모두 맡는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 신분보장의 경우는 대학마다 정년보장의 적용기준이 달라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2014년의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정년이 보장된 사람은 약 1/3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부교수, 정교수의 비율보다 비정년 신분의 비율이 약간 더 높은 점은 근래에 대학교수가 정년직업이라는 기존 인식과 실제 신분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¹³⁾ 연구년에 있어서도 교수들이 재직기간 중에 지낸 사람은 절반 정도이고, 연령비율로

으며 이 가운데 여교수는 238명으로 21%를 차지하여 비중이 현격하게 증가했다.

13) 앞으로 교수의 직급 승진이 자동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예를 들면, 전국 주요 대학은 승진자율화, 승진정원제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교수들의 승진 탈락비율이 대폭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불 때 연령이 높고 부교수 이상의 신분을 가진 교수도 연구년을 보내지 않은 교수가 제법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개인의 신상문제도 있겠지만, 연구년을 일찍 신청하는 것에 대한 교수사회의 문화 및 인식과 무관하지도 않을 것이다(황응연, 1991; 이화국, 1996). 이와 유사하게 대학원생 부분에서도 현재 지도학생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전반적으로 환경적 변수에서의 쟁점은 그간 정부에서 대학의 교육여건개선, 경쟁력 강화, 교수의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한 제법 다양한 정책이 나왔지만, 정작 대학의 여건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아직까지 많은 교수들은 강의중심대학에 소속되어 외부보다는 소규모인 교내연구비에 연구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 질적으로 준비시간을 요하는 강의시수와 보직 및 봉사부담이 높으며, 연구년과 정년보장이 미흡한 상태에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행정학 교수의 환경적 요인

소속대학	강의중심	714명(85.6%)	보직/봉사 부담	교내+외부	290명(34.7%)
	연구중심	120명(14.4%)		둘중하나	507명(60.8%)
연구비지원	교내우위	525명(62.9%)	연구년	없음	37명(4.4%)
	외부우위	309명(37.1%)		연구년수혜	464명(55.6%)
강의부담	학부+대학원	437명(52.4%)	대학원생	미수혜	370명(44.4%)
	둘중하나	365명(43.8%)		지도학생 있음	321명(38.5%)
	없음	32명(3.8%)		지도학생 없음	513명(61.5%)
신분보장	정년보장	306명(36.7%),			
	그렇지않음	528명(63.3%)			

2. 연구생산성 수준의 분석 결과

서두의 세 번째 연구질문이었다, “행정학 분야 교수들이 가진 연구생산성(faculty research productivity)의 양적, 질적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의문을 풀기 위해 연구생산성 수준을 연도별, 개인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4>이다.¹⁴⁾

우선 최근 5년 간 행정학 분야 대학교수의 연구생산성은 1인당 평균 6.95편으로 나타났

다(경향신문, 2008. 7. 24; 교수신문, 2014. 12. 9).

14) 이렇게 구분해서 분석한 이유는 개별 인적사항과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수 개인별 특성에 관한 범주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학술연구자정보를 이용했다. 이에 연령보다 구분이 정확한 성별, 직급, 학위사항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연구생산성 수준은 곧 연구실적물의 숫자를 의미하는 양적 수준의 평균에 5등급으로 나눈 질적 가중치(5점~1점)를 합산한 가중평균값으로 구분하여 산정 되었다. 항목간 분석표본의 수가 앞선 전체표본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교수의 신상정보획득과정에서 일부 연구실적공개를 거부한 케이스는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고, 이를 다시 1년 단위로 환산하면 연간 1.39편(가중 3.10편)을 발표했다. 물론 개인 당 표준편차는 연구결과물의 질적 수준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났고, 전체 행정학 교수의 평균 연구생산성을 정확히 대변한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집계하는 전체 학문분야의 연구생산성에 비해서는 행정학 평균이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짐작된다.¹⁵⁾

세부적인 항목별로는 보다 의미 있는 점들이 발견되었다. 먼저 연도별로는 2009년에서 연구생산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의 연구생산성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교수들이 과거보다 연구활동을 열심히 하고 성과물을 많이 발표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또한 연구성과물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전문학술지의 종류가 크게 증가한 점, 정부와 학교의 각종 규제와 유인책도 이러한 현상에 일조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1.41편(가중 2.96편), 여성은 1.27편(가중 3.03편)으로 남성교수의 연구생산성 평균이 여성교수의 그것보다 약간 높았다. 이는 남성교수와 여성교수의 표본차이가 크고 질적 가중치를 고려한 평균은 여성이 높아서 절대적으로는 그 차이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다만 이는 성별 연구생산성의 기존 찬반논쟁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연구생산성이 약간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Blackburn & Bentley, 1993; Streuly & Maranto, 1994; Fogarty & Ruhl, 1997; Perry, et. al, 2000)와 비슷한 결과로 해석된다.

직급별로는 조교수의 연구생산성이 1.58편(가중 3.28편)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부교수 1.43편(가중 3.50), 정교수 0.91편(가중 2.75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교수와 부교수의 연구생산성이 높은 것은 일단 연령이 젊은 편이고 최초 교수로 임용되어 약 4~5년 이상의 재직기간이 지나면서 연구의욕과 전문성이 한층 높아지는 시기인 이유로 사료된다. 반면에 정교수의 연구생산성이 가장 낮은 것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정교수로 승진되면 연령이 높아짐과 동시에 신분보장, 심리적 안정으로 인한 동기감소 등으로 연구의욕도 상대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학위별로는 국내박사 출신교수(1.68편, 가중 3.26편)가 외국박사 출신교수(1.36편, 가중 2.93편)의 연구생산성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단 표본교수 834명에서 국내박사는 322명(38.6%), 외국박사는 512명(61.4%)을 각각 차지한 바 있다. 그런데 <표 4>에서 국내박사는 2009년 296명에서 2013년 310명으로 14명(4.5%)이 증가한 반면, 외국박사는 435명에

15) 한국연구재단(2014)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수의 학술지 평균 게재수는 평균 1.21편으로 나타났다. 수준별로 보면, SCI급 학술지 0.35편, 등재(후보)지 0.75편, 기타학술지 0.12편이었고, 저서는 1인당 0.19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와 유사하게 연구생산성의 개인별, 대학별, 지역별, 학문영역별 편차는 심하였다.

서 502명으로 67명(13.3%)이 증가했다. 표본에서 동일기간 외국박사출신 교수의 증가폭이 국내박사 증가폭의 3배 가량이고, 재직인원도 국내박사보다 192명이 더 많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국내박사의 평균은 외국박사의 평균을 상회한다. 이는 외국박사의 역량과 자질이 우수한 편이므로 연구역량도 국내박사보다 높을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이다. 물론 이 결과의 일반화에는 주의가 요망되며, 이것만 가지고 단적으로 국내와 외국출신 교수의 능력을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많다. 하지만 행정학의 본토인 미국 등에 대비하여 근래 국내박사출신 교수의 연구생산성 수준 향상은 긍정적 현상으로 해석된다.

<표 4> 행정학 교수의 연구결과물 수준 평균

연도	구분	성별		직급별			학위별		연도별
		남성	여성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국내박사	외국박사	
2009	케이스	702	28	223	179	386	296	435	2,25
	평균	1.27	0.78	1.45	1.23	0.73	1.55	1.25	1.19
	가중평균	2.64	2.86	2.67	3.21	2.29	3.08	2.66	2.73
2010	케이스	728	39	232	182	390	299	457	2,33
	평균	1.44	1.15	1.49	1.45	0.88	1.62	1.30	1.33
	가중평균	2.66	3.01	3.28	3.50	2.52	3.19	2.81	3.01
2011	케이스	721	36	219	188	399	307	476	2,35
	평균	1.46	1.23	1.61	1.50	0.92	1.71	1.25	1.39
	가중평균	3.12	2.99	3.22	3.46	2.98	3.33	3.00	3.18
2012	케이스	756	41	226	186	400	308	492	2,41
	평균	1.68	1.35	1.60	1.46	0.98	1.69	1.43	1.45
	가중평균	3.02	3.09	3.56	3.54	3.02	3.17	3.12	3.22
2013	케이스	778	45	229	191	405	310	502	2,46
	평균	1.85	1.42	1.77	1.52	1.01	1.84	1.57	1.58
	가중평균	3.34	3.20	3.69	3.77	2.93	3.52	3.06	3.37
2009 ↓ 2013	케이스	3,685	189	827	926	1,980	1,520	2,362	11,791
	평균	1.41	1.27	1.58	1.43	0.91	1.68	1.36	1.39
	가중평균	2.96	3.03	3.28	3.50	2.75	3.26	2.93	3.10

* 평균은 대상연도의 단순 개별연구실적 수의 합계를 케이스(결측 포함)로 나눈 결과임.

* 가중평균은 개별 연구실적에 대하여 국제학술지(SSCI 포함) 및 저서 5점, 등재학술지 4점, 등재후보학술지 3점, 기타학술지 2점, 교내논문집 1점을 부여한 후 케이스로 나눈 결과임.

3. 연구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두의 마지막 연구질문이었다, “향후 행정학 교수들의 연구생산성 변화를 효과적으로 설

명할 수 있는 변수에는 무엇이 있는가?”의 해답을 찾기 위해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는 회귀분석을 하였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연구생산성 변수의 차이가 실제 이론적인 논의에서 상정된 영향변수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제3의 요인 때문인지 알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앞선 연구모형에서 가정한 회귀방정식에 따라, 종속변수를 연구결과물의 개인별 가중 평균(총 11,791 케이스)으로 보았고, 독립변수를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총 11개로 구성하였다. 이 결과는 행정학 교수의 연구생산성에 대한 변수들의 상대적 유의성을 대략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¹⁶⁾

먼저 개인적 특성(Y1)으로 구분된 독립변수들이 연구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값을 추정한 결과는 <표 5>이다.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0.225로 행정학 교수 연구생산성의 약 22.5%가 5개의 독립변수 요인에 의해 설명되었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다소 낮기는 하지만, 각 요인간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각 표준화계수(β 값)를 보면 연령($\beta=-.316$)의 설명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학위($\beta=.143$)가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나머지 독립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5> 행정학 교수의 연구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I)

차원	변수	B	β	t	p-value	비고
개인 모형 (Y1)	연령	-.922	-.316	-8.875	.002	R ² =0.225 F=46.863 P=0.000
	성별	5.338E-02	.072	1.320	.187	
	경력	9.452E-04	.000	0.008	.993	
	학위	.171	.143	2.505	.019	
환경 모형 (Y2)	소속대학	-9.213E-02	-.135	-2.328	.049	R ² =0.308 F=91.496 P=0.000
	연구비 지원	.191	.286	6.927	.000	
	강의부담	-1.190E-02	-.007	-0.171	.864	
	보직·봉사부담	-.179	-.262	-5.375	.009	
	정년보장	-3.537E-02	-.049	-1.066	.289	
	연구년	.179	.249	4.237	.028	
	대학원생	6.540E-03	.009	0.225	.822	

비고) 연령(30대/40대/50대), 성별(남성/여성), 경력(연구경력/강의경력), 학위(국내/외국), 소속대학(강의중심/연구중심), 연구비(교내/외부), 강의부담(전공/대학원/없음), 보직·봉사(교내보직/외부/없음), 정년보장(원료/미완료), 연구년(지냄/안지냄), 대학원생(있음/없음).

16) 물론 밝힌 바와 같이 독립변수와는 달리 종속변수인 연구생산성은 연구결과물수준을 통한 대리변수로서의 성격이 강해 측정오차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인과관계 상의 대략적인 경향은 충분히 시사할 수 있다.

역시 <표 5>의 환경적 요인(Y2)에서는 소속대학 등 7가지 변수를 투입하여 연구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값을 추정하였다. 결정계수는 0.308로 연구생산성의 약 30.8%가 7개의 독립변수 요인에 의해 설명되었다.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β 값)를 보면 연구비지원($\beta=.286$)의 설명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보직 및 봉사부담($\beta=-.262$), 연구년($\beta=.249$), 소속대학의 특성($\beta=-.135$)의 순으로 연구생산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나머지 독립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한편, 교수의 연구생산성 변수에 대해 개인적 변수와 환경적 변수를 모두 고려하여 동시 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이는 총 11가지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각 변수들이 연구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모형을 추정한 것이다. 우선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는 0.468로 총 5개의 유의한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 회귀식의 공선성 통계량으로 판단하는 전체 변수들의 상호 배타성도 유지되고 있다. 통합모형에서 회귀계수의 설명력이 크게 나타난 순위는 보직 및 봉사부담($\beta=-.229$), 연구비 지원($\beta=.207$), 연구년($\beta=.192$), 연령($\beta=-.157$), 학위($\beta=.134$)로 나타났다. 나머지 독립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앞선 결과들과의 차이를 보면, 소속대학 특성변수 1가지의 유의성이 없어지고 있는데, 나머지 변수의 유의성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6> 행정학 교수의 연구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II)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β)			공차한계	VIF	
(상수)	.601	.132		5.423	.000			
통합모형 (Y3)	연령	-.138	-.038	-.157	3.580	.000	.301	3.321
	성별	7.995E-02	.045	.097	1.787	.074	.489	2.044
	경력	6.083E-02	.033	.086	1.846	.062	.562	1.780
	학위	8.378E-02	.028	.134	3.028	.003	.213	4.690
	소속대학	2.292E-02	.062	.013	.371	.711	.263	3.804
	연구비지원	.149	.038	.207	4.892	.000	.525	1.903
	강의부담	-4.239E-02	.086	-.016	-4.494	.621	.134	7.438
	보직·봉사부담	-.181	.032	-.229	-5.876	.000	.240	4.159
	정년보장	-5.076E-02	.052	-.065	-.967	.334	.339	2.954
	연구년	.137	.027	.192	4.078	.000	.241	4.154
	대학원생	5.621E-02	.072	.033	.783	.434	.157	6.370
R ² = .468		F = 149.295		P = 0.000				

이러한 각 모형들의 분석된 결과에 대해 새로운 발견과 쟁점들은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먼저 교수 개인의 연령은 연구생산성과 밀접한 경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낮은 연령이 연구생산성이 높았고, 반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구생산성이 줄어드는 부(-)의 경향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학위사항은 연구생산성과 많은 연관이 있었는데, 국내 박사 출신교수가 외국박사 출신교수보다 연구생산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위와 연구생산성에 관한 이런 결과는 외국박사의 연구생산성이 더 높았다거나(White, 1986), 언어나 인적교류의 접근성(Arimoto & Ehara, 2000)이 외국박사가 더 유리하다는 해외의 사례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의문이 생긴다. 그것은 국내박사교수가 과연 외국박사 교수보다 국내 연구실정을 더 잘 알고, 생산성이 우수한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등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국박사비율이 높은 점이 선진학문을 접하고 이를 한국행정학에 접목한다는 이점을 갖는 반면, 상대적으로 젊은 인재의 해외유출과 국내대학원교육의 취약성 역시 반증한다는 점이다. 더구나 국내·외 학위자가 모두 지역적 편중이 심한 것은 행정학의 다원적 담론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선진국일수록 자국박사의 비중이 높다는 점과 행정학의 토착화 규범을 고려할 때 이 결과는 일단 긍정적 현상으로 생각된다(조성한, 2000; 이성호, 2002; 김정렬·한인섭, 2003). 다만 여기에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¹⁷⁾

한편 연구비 지원은 행정학 교수의 연구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연구비보다 외부연구비를 더 많이 지원 받은 교수집단이 소수였지만, 여기에서 연구생산성이 더 높은 경향성을 띄었다. 이는 경쟁성이나 규모의 측면에서 볼 때 외부연구비가 연구생산성에 보다 큰 역할을 한다는 주장(우양호 외, 2005; 조우현, 2006)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행정학에서 외부연구비가 교수들의 논문 생산에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또한 이는 집단의 수적 측면에서 아직 교내연구비 의존도가 높은 행정학 연구현실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보직 및 봉사부담은 연구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의부담 변수와 함께 교수의 연구생산성에 비슷한 부(-)의 영향을 예상했지만, 강의부담은 연구생산성에 별 영향이 없는 반면 보직 및 봉사부담은 연구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이유는 보직 및 봉사가 강의와 동일한 맥락이자 교수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대학에서 이에 대한 연구생산성 관점의 특별한 보상은 없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지금 대학은 교수의 학

17) 이를 연령대별로 다시 분석해 본 결과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미국 박사 학위자 비중이 12%(60대)→29%(50대)→37%(40대)로 증가했고 타외국 박사는 12%→12%→13%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또 국내 박사도 연령이 낮아질수록 비중이 같이 낮아지는 등 젊은 교수일수록 외국박사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내보직에 대해 강의시간 경감 등의 미약한 보상만을 주고 있고, 외부단체의 경우 이마저도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실용성이 강한 행정학의 학문특성으로 인해 최근 정부가 각종 현안 및 정책과정에 대학교수의 참여를 늘리고 있는 점도 연구생산성 방해의 일부 원인으로 생각된다.

연구년 시행여부에 관한 변수는 연구년을 지낸 교수가 그렇지 못한 교수보다 연구생산성이 높다는 점을 볼 때 일단 연구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연구년은 교수들로 하여금 새로운 학문적 동향을 접하고, 연구에 투자하는 절대시간을 부여하며, 연구의욕을 전반적으로 고취시켜 연구생산성에 긍정적 상관성을 가진다는 해외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Endres, 2001; Yining, Gupta & Hoshower, 2006).

마지막으로 교수가 소속된 대학의 특성도 분명 일정부분 연구생산성과 경향성 내지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소속대학의 특성이 강의중심대학인 곳보다 연구중심대학인 곳이 연구생산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이다(Blackburn & Bentley, 1993; Perry, et. al, 2000). 물론 모든 변수를 고려한 통합모형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졌으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수들이 연구중심대학에 소속될수록 연구생산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경향성이었다. 따라서 앞에서 설정된 행정학 교수의 연구생산성 영향요인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는 <표 7>과 같이 요약된다. 이러한 발견들은 향후 행정학계에 새로운 논쟁거리를 제공하는 수준에서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표 7> 행정학 교수의 연구생산성 영향요인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

가설	가설	검증결과	회귀계수(상대적 크기)
가설 1	연령→연구생산성	채택	4위
가설 2	성별→연구생산성	기각	.
가설 3	경력→연구생산성	기각	.
가설 4	학위→연구생산성	채택	5위
가설 5	소속대학→연구생산성	기각	.
가설 6	연구비지원→연구생산성	채택	2위
가설 7	강의부담→연구생산성	기각	.
가설 8	보직·봉사부담→연구생산성	채택	1위
가설 9	정년보장→연구생산성	기각	.
가설 10	연구년→연구생산성	채택	3위
가설 11	대학원생→연구생산성	기각	.

4. 토론: 해석상의 쟁점과 과제

추가적으로 앞선 분석에서 교수의 개인적 특성 일부 요인(성별, 경력), 환경적 특성 일부 요인(강의부담, 정년보장, 대학원생)은 연구생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굳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적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연구생산성의 영향요인들에 대해서 이 연구와 독자들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 향후 논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또한 국내의 연구결과와 해외의 기존 연구가 포괄적으로 잘 대비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그 이유를 심층적으로 고민할 토대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먼저 개인의 성별은 연구생산성 수준에서 남성교수와 여성교수의 차이는 약간 있었지만, 영향분석에서 이것이 다른 요소에 비해 연구생산성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었다는 점을 제시한다. 교수직에서 남성과 여성은 최소한 연구능력과 생산성에서만큼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의 연구경력도 강의경력도 현직교수의 연구생산성과는 크게 상관이 없었다. 연구와 강의는 내용적으로 서로 상승효과(the synergistic effect)를 일으킨다는 기존 해외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Schiele, 199; Sax, et. al, 2002; Yining, Gupta & Hoshower, 2006). 따라서 여기서의 결과들은 잠정적으로 수긍할만한 것으로 사료된다.

환경적으로 강의부담이 연구생산성에 유의미하지 못한 결과는 앞선 강의와 연구의 상호효과도 있지만, 최소한 이론에서 가정한 상충관계(trade-off)라고도 단정할 수 없게 만든다. 이는 수업준비, 자료구비 및 교재연구, 시험과 과제물, 기타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연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조심스러운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대부분 행정학 교수들은 학부와 대학원을 포함하여 학기 당 평균 9학점 이상의 책임시수를 담당하며, 이 중 대학원 과목은 약 3학점 이하의 수업을 개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수의 행정학 교수가 전공과 대학원 과목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교수부담이 높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같은 맥락에서 보직 및 봉사부담도 대다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실적으로 연구시간을 빼앗길 가능성이 그만큼 높고 연구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강의부담과 보직부담이 단순히 시간의 문제인지, 의지의 문제인지에 대한 쟁점은 보다 심도 있는 후속연구로 풀어야 한다.

정년보장 변수가 유의하지 않았던 결과와 가설의 기각도 신분적 안정이 연구의욕을 고취시킨다는 해외연구(Zivney & Bertin, 1992; Hasselback & Reinstein, 1995)의 결과와는 크게 다르다. 이는 교수들에 대한 한국적 정년트랙 제도가 오히려 현실안주와 생산의욕을 감퇴시켜 연구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기존의 주장과 가깝게 느껴진다(이성호, 1995; 조우현, 2006). 물론 교수의 정년신분과 연구의욕은 서로 상관이 없다거나, 나이가 들수록 노하우가 쌓이고 연구역량이 늘어난다는 등의 반론과 비판의 여지도 남겨둔다.

그런데 연구보조인력으로서의 대학원생의 존재도 아직 연구생산성에 대한 유의성이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깊이 주목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교수의 연구생산성은 대학원생에 대한 학문적 지도에 의해 직접적으로 높아지기도 하고, 역량 있고 우수한 대학원생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특히 국내와 해외에서는 박사논문 지도를 통한 공동연구의 효과 등에 의해 긍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leary, 1992; Douglas, 1996; Crosta & Packman, 2005; 우양호 외, 2005; 권해수, 2009). 그런데 이 연구에서 교수의 연구생산성에 유의적이지 못한 상황은 현재 지도학생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지역 및 대학간 편차도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교수간의 지도학생 숫자는 차이가 커서 지방대학의 대학원과정 운영이 침체되었다는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한국연구재단, 2014; 교육부, 2014). 나아가 아직 국내대학에 역량 있고 우수한 행정학 대학원생이 적기 때문일 수도 있고, 교수가 졸업논문지도와 공동연구 등 상호교류의 수준이 외국에 비해 낮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러한 모든 결과는 일반화시키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는 잠정적 추론에 불과하다. 따라서 여기서 제기한 해석상의 쟁점들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관심과 후속연구가 뒷받침될 필요성을 제기한다.¹⁸⁾

V. 결론 및 함의

1. 연구결과의 요약

이 연구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현재 행정학 분야에서 대학교수의 연구활동에 대해 생산성 개념을 도입하고, 여기에 관계되는 요인들을 시론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서두에 제기한 연구질문에 따른 해답과 요약은 다음과 같으며 결론에 갈음하기로 한다.

첫째, 현재 행정학 분야에서 대학교수의 연구활동에 있어 생산성이나 성과를 현실세계에 적용가능성은 있는가? 있다면 그 개념정의는 무엇인가? 이 질문의 해답은 다음과 같다. 먼

18) 류희숙·배종태(1997: 44-66)에 의하면 우리나라 이공계 대학교수 223명의 연구생산성은 연구비 수주, 소속대학, 대학원생(박사과정 및 지도학생)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 강의 부담, 보상체계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이 연구의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다만 이공계는 행정학(사회과학)에 대비하여 연구비의 수주규모 자체가 다르고, 대학원도 실험교실(lab) 단위로 운영되며, 책임교수의 역할 및 논문저자의 숫자나 표기관행도 많이 다른 이유가 있다. 또한 류희숙·배종태(1997)는 이 연구처럼 이론적으로 다양한 변수가 고려된 전수에 가까운 조사가 아니라는 약점이 있다. 그러나 행정학과 이공계에서 대학교수의 연구생산성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변인은 연구비와 소속대학의 특성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점은 향후 학문분야에 상관없이 정부의 연구비 지원정책과 전국 대학들의 교원관리방식이 우리나라 대학교수들의 연구생산성을 좌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저 연구생산성 개념의 적용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생산성은 교수의 사명과 책무(강의 및 교수활동, 연구활동, 행정 및 봉사활동), 교수업적평가제도, 수요와 선택의 원칙, 발표와 소멸의 원칙을 통해 현실에서 충분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구생산성의 개념은 “한 사람의 교수가 자신의 유, 무형적 수고와 노력을 투입하여 일정한 연구활동 결과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다시 학계에 발표, 평가, 수용되는 일련의 과정”이었다.

둘째, 행정학 분야의 대학교수는 과연 어떤 배경과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며, 어떤 환경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의 해답으로 개인적 특성의 경우 우수한 편이었으나, 상대적으로 환경은 열악한 편이었다는 추정이 가능했다. 현재 행정학 교수의 평균연령은 약 49.6세로 성별은 남성이 대부분이었고, 재직기간은 10년~20년, 직급은 정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연구경력이 강의경력보다 많았고, 외국박사학위자가 더 많았다. 연구환경의 측면에서는 아직 연구중심대학보다 강의중심대학에 소속된 교수가 더 많고, 외부보다 교내연구비에 많이 의존하며, 강의와 보직업무의 부담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년을 지내지 못한 교수보다는 지낸 교수가 더 많았으며, 대학원 및 지도학생은 다소 적은 수준에서 개인과 지역적 편차가 있었다.

셋째, 행정학 분야에서 교수의 연구생산성(faculty research productivity)은 그 양적, 질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 해답으로 일단 연구생산성의 양적, 질적 수준이 낮은 편은 아니었다. 최근 5년 간 전체 행정학 분야 대학교수의 연구생산성은 평균 6.95편으로 나타났고, 1년 기준으로는 1.39편, 질적 가중치를 고려하면 3.10편이었다. 개인적 특성(연령, 직급, 학위 등)에 따른 편차가 있었지만, 정부가 집계하는 전체 학문분야 평균생산성을 상회하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연구생산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향후 긍정적인 예상을 가능케 하였다.

넷째, 행정학 교수의 연구생산성에 대한 각종 영향변수, 즉 향후 연구생산성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수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의 해답으로 일단 연구생산성의 영향요인은 비교적 분명하였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연령과 학위사항이었고, 환경적 요인에서는 연구비지원, 보직 및 봉사부담, 연구년, 소속대학의 특성 등이었다. 그리고 다각적인 모형들의 분석 결과, 소속대학의 특성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변수들의 경향성이 일치하였다.

2. 함의와 처방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가정한 이론적 가설의 상당 부분이 현실에서도 사실로 드러나 일차적으로 향후 행정학 분야에 교수의 연구생산성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제고시키는데 있

어서 개인적 특성 및 환경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향후 관련된 행정학 교수의 연구활동에 관한 정부, 대학, 학계의 처방과 전략에 대비한 몇 가지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

우선 행정학 분야는 교수의 연령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학문의 질적인 노화현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연령이 연구생산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으로 볼 때, 향후 대학에서는 젊고 유능한 교수의 충원이 지속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령과 직급에 따른 연구실적물의 변화에서 젊은 교수와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연구지원 투자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효과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둘째, 현직교수의 학위는 현재 외국박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 국내박사는 최소한 이에 상응하거나 오히려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생산성에 학위사항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대학과 학계의 외국박사 선호현상에 대해서 잔잔한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일단 앞선 해석에서 이에 관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연구비 지원정책은 기존의 주장들처럼 연구생산성 향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정부와 민간, 교내의 연구비지원을 모두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여기에는 지원기준 및 자격과 연구성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담보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쟁성이 없고 소규모인 교내연구비에 의존되기보다는 경쟁성과 규모를 가진 외부연구비에 대한 지원과 신청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내연구비는 순수교육과 행정학의 근간유지에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개인 및 집단연구는 역량에 따라 수주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볼 만 하다. 더불어 외부연구비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교수의 연구생산성에는 지역, 대학, 신분이 안배된 ‘균형과 분산의 원칙’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연구생산성 관점에서 현재 강의중심대학 중심에서 연구중심대학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은 옳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 교수가 강의중심대학에서 보다 연구중심대학에 소속될수록 분위기, 의욕을 자극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연구생산성도 제고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연구중심대학의 핵심인 대학원에 대해 과거처럼 양적인 성장을 지양하고 행정학 분과별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대학원을 선별하여 집중 육성하는 방향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연구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현직교수는 스스로 연구년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연구에 지장을 주는 보직 및 봉사부담이 많을 경우 스스로 이를 줄여나갈 필요성도 있다. 물론 개인사정과 가치관에 따라 불가피하게 연구년을 지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업무가 연구보다 중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서두에서 교수의 사명과 책무를 비중 있게 소개했고, 연구활동이 우선되어야 할 당위성을 여러 차례 논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점을 조심스럽게 환기시켜 본다. 일단 이 연구는 규범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간 다루어지지 못했던 시론적 주제로 인해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전국 행정학 교수에 대해 한계집단(marginal group)까지 포함한 전수조사가 되지 못한 점과 연구생산성의 대리변수로 연구결과물을 이용했다는 약점이 있다. 또한 이 연구의 분석모형에서 보다 다양한 2차항, 3차항 잠재변수들까지 포함한 모형을 분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해석이 수반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독자들은 표집과정과 변수의 특징을 고려하여 여기서의 결과를 다소 제한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특히 교수의 학술지 논문 실적이 높다하여 연구생산성이 꼭 우수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일각의 비판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존 연구들이 동의하는 최선의 방법이며, 그 결과는 최소한 실태파악의 기본 자료는 될 수 있음을 해명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논문발표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더 타당하게 반영할 수 있는 다른 개별적인 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 나아가 행정학의 정체성과 이를 통한 분과학문 영역간 연구생산성을 비교할 수 있는 모형이 개발되고, 대상범위가 비정규 교수집단까지 모두 포함된다면 장기적으로 정부와 대학의 학술진흥정책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명구. (2001). 한국행정학 위기론에 관한 소고: 반주변부로부터의 사색. 「정부학연구」. 7(2): 91-116.
- 강승호. (2000).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지원제도 개선방안. 「교육평가연구」. 13(1). 261-284.
- 권경득. (1996). 한국행정학 연구경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기고논문(1967-1995)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0(4): 4139-4153.
- 권혜수. (2009). 한국행정학의 학문후속세대 교육의 위기구조와 대응방안 연구. 「한국행정학보」. 43(1): 299-320.
- 김석준. (2001). 뉴 밀레니엄 시대의 정부와 행정학의 정체성: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진단과 처방의 모색. 「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논총」. 6: 5-23.
- 김정렬·한인섭. (2003). 행정학 위기의 실상과 대책. 「한국행정학보」. 37(4): 19-38.
- 김태일·남궁근. (2003). 학술연구비 지원정책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연구비지원유형과 연구결과물수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2(2): 163-187.
- 류희숙·배종태(1997). 이공계 대학교수의 연구생산성 영향요인 분석. 「기술혁신연구」. 5(1): 44-66.
- 소영진. (2003). 행정학의 위기와 공공성 문제. 「정부학연구」. 9(1): 5-22.
- Arimoto, Akira·Ehara, Takekazu, 김정휘(역). (2000). 「대학교수의 자화상」. 서울: 교육과학사.
- 우양호·홍미영. (2004). 지방정부연구의 실증적 분석(1997-2004): 행정학 분야 주요 학술지와 비교

- 연구. 「지방정부연구」. 8(2): 75-103.
- 우양호·홍미영. (2008). 여성관련 연구수요와 전망에 관한 델파이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1): 235-259.
- 우양호·홍미영·김인. (2005). 행정학 분야 학문후속세대의 연구실태 및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1): 553-581.
- 이성호. (1995). 「한국의 대학교수」. 서울: 학지사.
- 이성호. (2002). 「세계의 대학교수」. 서울: 문이당.
- 이종수·윤영진 외. (2014). 「새 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 이화국. (1996). 교수 연구년제의 효율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82: 19-26.
- 임의영. (1997). 행정학의 위기론. 「동양대학교 논문집」. 3(1): 233-251.
- 윤성식. (2000). 행정학의 위기. 한국행정학회 2000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43-248.
- 정승건. (2000).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한국행정개혁이론의 모색. 「한국행정학보」. 34(2): 39-59.
- 정윤수·권길화. (1999). 학술연구비 지원정책의 정보비대칭 분석. 「한국행정학보」. 33(3): 111-127.
- 정정길·이달곤. (2000). 전환기 행정학 교육의 새로운 방향모색: 기본교육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38(2): 79-100.
- 조성한. (2000). 21 세기 행정의 미래와 한국 행정학의 비전: 21세기 한국행정학의 역할과 위기극복. Kapa@포럼. 94: 14-16.
- 조우현. (2006). 「대학을 바꿔야 나라가 산다: 향후 10년의 대학혁신」. 서울: 중앙M&B.
- 주삼환. (2006). 「고등교육연구」. 서울: 한국학술정보.
- 주상현. (2002). 한국행정학 연구경향의 실증적 분석: 최근 7년(1995-2001)간 한국행정학보 기고논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6(3): .
- 한동성·장덕희·한승환·양정모. (2008). 정부의 연구비 지원이 대학 연구자의 논문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행정학보」. 42(4): 265-290.
- 한승환·권기석. (2009). 대학의 특성 및 연구비 구조와 산학 성과와의 관계: 우리나라 대학의 이공계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3(3): 307-325.
- 황응연. (1991). 교수 연구년제의 활성화 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53: 54-62.
- 교육부. (2014). 대학지원국(대학정책과) <전국 대학 교수연구업적통계>, <전국 대학교원현황> 및 내부자료.
- 한국연구재단. (2014). 연구업적정보검색(KRI) 및 연구통계 및 용어사전.
- 한국연구재단. (2014). 「전국 4년제 대학 연구활동 실태조사연구」. 성과분석팀 보고서.
- 한국행정학회 및 한국정책학회. (2014). 회원명부 및 주소록.
- Allison, Paul. D. and Stewart, John. A. (1974). Productivity Differences among Scientists: Evidence for Accumulative Advanta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4): 596-606.
- Bayer, Alan. E. and Dutton, James. E. (1977). Career Age and Research Professional Activities of Academic

- Scientist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58(1): 259-282.
- Bell, Timothy B., Frecka, Thomas. J. and Solomon, Ira. (1993). The Relation Between Research Productivity and Teaching Effectiveness: Empirical Evidence for Accounting Educators. *Accounting Horizons*. 7(4): 33-49.
- Bieber, Jeffery. P. and Blackburn, Robert. T. (1993). Faculty research productivity 1972-1988: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onstant units of measure.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34(5): 551-568.
- Blackburn, Robert. T. and Bentley, Richard. J. (1993). Faculty research productivity: Some moderators of associated stres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34(6): 725-746.
- Bland, Carole. J., Center, Bruce. A., Finstad, Deborah. A., Risbey, Kelly. R. and Staples, Justin. (2006). The Impact of Appointment Type on the Productivity and Commitment of Full-Time Faculty in Research and Doctoral Institution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7(1): 89-123.
- Cleary, Robert. E. (1992). Revisiting the Doctoral Dissert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 An Examination of the Dissertations of 1990.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2 (1): 55-61.
- Crosta, Peter. M. and Packman, Iris. G. (2005). Faculty productivity in supervising doctoral students' dissertations at Cornell University.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4(1): 55-65.
- Douglas, James. W. (1996). Faculty, Graduate Student, and Graduate Productivity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Affairs Programs: 1986-1993.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6(5): 433-440.
- Dundar, Halil. and Lewis, Darrell. R. (1998). Determinants of Research Productivity in Higher Education.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39(6): 607-631.
- Endres, Thomas. G. (2001). An Examination of the Sabbatical Year in Leviticus 25 and Its Implications for Academic Practice.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Communication Administration*. 30(1): 29-38.
- Fogarty, Timothy. J. and Ruhl, Jack. M. (1997). Institutional Antecedents of Accounting Faculty Research Productivity: A LISREL Study of the Best and the Brightest.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12(1): 27-48.
- Forrester, John. P. (1996). Public Administration Productivity: An Assessment of Faculty in PA Programs. *Administration and Society*. 27(4): 537-566.
- Hasselback, James. R. and Reinstein, Alan. (1995). A Proposal for Measuring Scholarly Productivity of Accounting Faculty.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10(2): 269-307.
- Legge, J. S. and Devore, J. (1987). Measuring Productivity in U.S.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Affairs Programs 1981-1985. *Administration and Society*. 19(2): 147-156.
- Perry, R., Clifton, R., Menec, V., Struthers, C. W. and Menges, R. (2000). Faculty in Transition: A Longitudinal Analysis of Perceived Control and Type of Institution in the Research Productivity of Newly Hired Faculty.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1(2): 165-194.
- Qing, Hu. and Gill, T. Grandon. (2000). IS Faculty Research Productivity: Influential Factors and Implications.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Journal*. 13(2): 15-26.

- Roy, Kimberlee. M., Roberts, Michael C. and Stewart, Peter. (2006). Research productivity and academic lineage in clinical psychology: Who is training the faculty to do researc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2(7): 893-905.
- Sax, Linda J., Hagedorn, Linda. S., Arredondo, Marisol. and Dicrisi III, Frank A. (2002). Faculty Research Productivity: Exploring the Role of Gender and Family-Related Factor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3(4): 423-446.
- Schiele, Jerome. H. (1991). Publication Productivity of African-American Social Work Faculty.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27(2): 125-134.
- Streuly, Carolyn. A. and Maranto, Cheryl. L. (1994). Accounting Faculty Research Productivity and Citations: Are There Gender Differences?.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9(2): 247-259.
- Tien, Flora. F. and Blackburn, Robert. T. (1996). Faculty Rank System, Research motivation, and Faculty Research Productivity.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7(1): 2-22.
- White, Jay D. (1986). Dissertations and Publications in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6(3): 227-234
- Yining, Chen., Gupta, Ashok. and Hoshower, Leon. (2006). Factors That Motivate Business Faculty to Conduct Research: An Expectancy Theory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 for Business*. 81(4): 179-189.
- Zivney, Terry. I. and Bertin, William. J. (1992). Publish or Perish: What the Competition is Really Doing. *Journal of Finance*. 47(1): 295-329.

ABSTRACT

A Study of Faculty Research Productivity and Its Determinants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Yang-Ho Woo and Kyung-Dong Koh

This study aimed at activating the research work of professors and at promoting a higher quality of education by analyzing the present level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research environment, and faculty research productivity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exploring its determinants. For this study, 834 professors were selected from private and public universities located in Korea. Data analysis used descriptive statistics and regression analysis allowing for an in-depth examination of the present level of faculty research productivity and its determina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Korean professors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display the present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research environment: ㉠the average age was 49.6 and most of Korean academic professors were male and full professors; ㉡ most of their doctoral degrees were earned abroad; ㉢ the average number of courses taught in the last five years were 2-3 (for 6-9 credit hours); ㉣ most of Korean academic professors take responsibility for an official position in academic affairs or a research society; ㉤the average amount of research funds provided by their school was greater than was provided by other sources, and the greater part of professors took sabbatical leaves; ㉥the number of research assistants at the master's and doctoral level was above average. Second, the average research productivity by Korean professors in the last five years differed according to gender, academic rank, and origin of degrees. Third, the decisive determinants of research productivity of Korean academic professors were also different according to each dimensions: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amount of research funds provided by the school and the publication of papers;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doctoral degrees and the publication of papers;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at a research-based university and the publication of papers;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aking a sabbatical leave and the publication of papers. In addition, a professor's age and administrative and service burdens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publication of papers.

【Keywords: research productivity, public administration, faculty, individual characteristics, research environment, publication of papers】